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검사의 혜택을!”

健協 인천지부, 기혼여성 자궁암, 유방암 검사



健協 인천지부는 인천 제 1지구 의료보험조합의 보건예방 사업인 피부보험자 및 피부양자 자궁암·유방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인천 시내 8개 의료 검진 기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이 검사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건협 인천지부에서는 검진팀을 구성, 사업장에는 출장검진을, 피부양자는 부속의원을 방문·검사토록 하고 있다.

여성 건강관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 이번 검사사업의 실시 과정과 의의를 관련인들을 통해 들어보기로 한다.

○ 건강관리에 대한 주부의 관심 환기

『사실 웬만한 주부는 자궁암이나 유방암 검사 정도는 다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보건예방 사업으로 자궁암·유방암 검사를 택한 것은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주부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바쁘다거나 직장을 이유로 검사를 받아보지 못한 기혼 여성들에게 검사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천 제1지구 의보조합 급여부장 盧兌燮씨의 이번 사업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바쁜 중이라도 잠깐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주부 건강관리에서도 중요하다.

○ 총 3만여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오는 10월에 마치게 되는 이 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중 총 3만여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인천 시내의 8개 검진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각 사업장으로 이미 검사에 대한 공문이 발송되었고, 또 각 개인에게도 공문이 나갔습니다. 5월 한달동안 천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의 담당자들에게 의보 전반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이번 검사사업의 의의를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검사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라고 盧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

이번 사업은 실제로 검사 대상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공짜라는 것 때문에 형식적이겠거니 생각해서인지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이번 검사의 의의나 중요성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검사를 받으러들 오셨고, 또 부인에게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검사용지를 받아가곤 하셨죠.』 이번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은 (주)후지카대원전기의 宋智子 간호사(27세. 보건담당자)의 얘기다.

그녀는 또,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달라졌어요.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결과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고, 또 평소에 신체적으로 이상을 느끼시던 분들은 상담을 해오기도 했어요.』라고 말한다.

○ 사후 관리 대책 모색도 필요하다.

지난해 9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宋씨는, 근로자들의 그런 변화에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정말 많다. 기본적인 치료, 직업병 관리를 위한 특수검진 관리, 의보관리 등등.

앞으로 신생아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옛되게 웃는 그녀는 『이런 좋은 검사의 혜택을 주시는 분들께 모두들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후대책에 대한 것이지요. 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도 있고, 또 경제적 이유로 속수무책인 때도 있어요.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후처리, 이상자의 2차검진 문제도 연구해보았으면 좋겠어요.』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 의보의 좋은 사업,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녀는 또,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는 간염검사를 의보조합에서 실시했다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무척 안타까워요.』라면서, 『의보에서의 이런 좋은 사업을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들이 잘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이번에 느꼈어요. 건협이나 저나 의보조합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덧붙인다.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좀더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宋智子씨는 말한다.



○ 보건교육의 정착이 필요한 때

한편, 이번 기혼여성 자궁암·유방암 검사에서, 여의사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健協 인천지부의 유승희 관리의사는, 『검사

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박함에 감동하기도 했고, 어떤 증상을 호소해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검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협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은 피부양자들은 정기검진의 필요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보건교육이 좀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라고 계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盧 兌燮 인천 1지구 의보조합 급여부장은 밝혔다.

○ 건강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곧 건강관리

유의사는, 『산후조리가 잘못되거나 하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많은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을 위해 식사나 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면서, 시간이나 경제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바쁜 틈에 잠깐 기본 체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그녀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 검사종목의 확대나 내용의 충실성도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는 희망도 밝혔다.

장마를 앞둔 후덥지근함이 인천 바닷바람에 실려 다가오는 오후, 후지카 대원전기 근로자들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속에서 건강한 삶의 의미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건강이 곧 우리의 발전이며 희망임을 가슴에 새기면서...